



2013년 12월

Investment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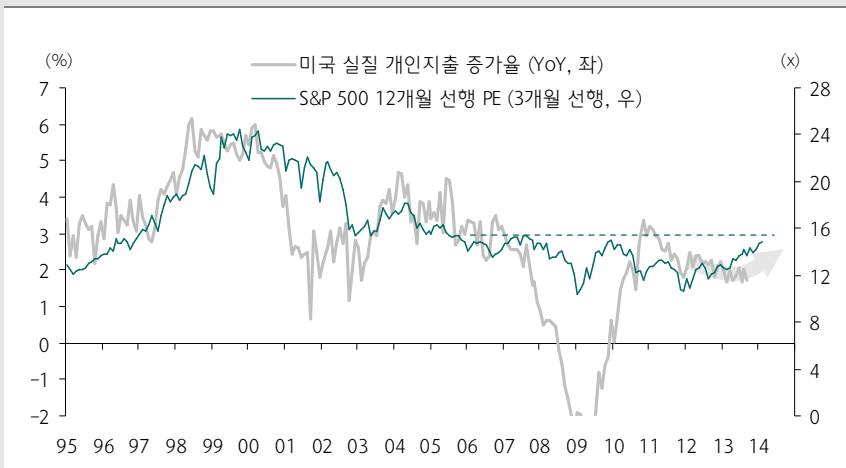
Global Asset Strategy

Monthly

12월 중시전망: 연간 고점 돌파 기대

-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벤트들이 남아있다.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이 진행 중이고, 부양책 기대되는 ECB 통화정책회의, 중국 경제공작회의와 미국 FOMC 회의와 같은 정책 일정, 그리고 우리금융 자회사 본입찰 등 아직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다. 경기회복을 확인시켜 줄 지표들도 관심이다.
- 지난 9월과 10월에 강하게 유입되었던 외국인 순매수는 11월 한달 동안은 부진했지만 12월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 경기회복 초기라는 점과 한국 증시가 여타 증시에 비해 상승폭이 작은 부분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12월에 배당수익률을 노리고 외국인 순매수 유입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 최근 미국 증시 버블 논란은 GDP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이 80%에 이르는 미국 경제 구조상 견조한 연말소비 시즌 성과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효율적 소비'의 컨셉에서도 할인율이 큰 연말소비 시즌에 그동안 눌렸던 소비 수요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소매업체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 12월 모델 포트폴리오는 외국인 순매수 유입 재개, 견조한 미국 연말소비 등을 감안할 때, 대형주 중심의 경기민감 섹터의 균형적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특히 대형주 중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신저가 주변에 위치한 가격메리트 높은 종목들의 긍정적 성과가 기대된다. 경기회복 흐름 속에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의 성과는 더 뚜렷할 수 있다. 이는 KOSPI 연간 고점 돌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개인지출의 회복은 2007년 또는 2009년 고점 수준까지 올랐을 증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시킬 것으로 기대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Equity Strategy



전략/퀀트 장희중

02-3771-7786

chang.heejong@hanafn.com

투자전략RA 조영성

02-3771-7606

ysungjo@hanafn.com

퀀트RA 한대훈

02-3771-7518

handaehoon@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 이벤트 많은 12월 중시

이벤트의 긍정적 효과 기대

경기회복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KOSPI 올해 성과는 소폭 강보합 수
준에 그쳐

올 한해 등락 속에 KOSPI는 연초대비 소폭 강보합 수준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 속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두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대외경기에 민감하고 수출주 비중 많은 KOSPI의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그림2).

미국발 경기회복 영향이 아직 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제한적이었고, 연준의 tapering 예고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2월에 예정된 많은 이벤트들이 증시
반전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

이러한 상황에서 12월에 예정된 많은 이벤트들이 증시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 최종수요의 회복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말소비 시즌이 진행되고 있고, 부양책이 기대되는 ECB통화정책회의도 12월 첫째 주에 예정되어 있다. 중국의 신도시화 정책회의와 3중대회 내용을 구체화할 경제공작회의도 12월 중반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최근 발표된 한국의 10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의 주춤
림을 넘어서는 뚜렷한 반등을 보임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이어서 17~18일에는 tapering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FOMC회의가 잡혀있다. 지난 9월 FOMC회의에서 확인했듯이 연준은 신중한 접근으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 불안 경감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우리금융 자회사 본입찰 일정도 순차적으로 12월에 진행된다. 자회사 매각의 성공 여부는 적극적인 투자활동의 신호로 받아들여져 증시 반전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기회복 흐름을 확인시켜줄 경제지표 발표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표1).

12월 KOSPI 연중 고점 갱신 기대

12월 증시 강세 흐름 전망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정된 이벤트의 긍정적 영향으로 12월 KOSPI는 올해 고점을 넘어서는 강세 흐름을 전망한다.

외국인 패시프 펀드의 배당 위한 순
매수 유입된 적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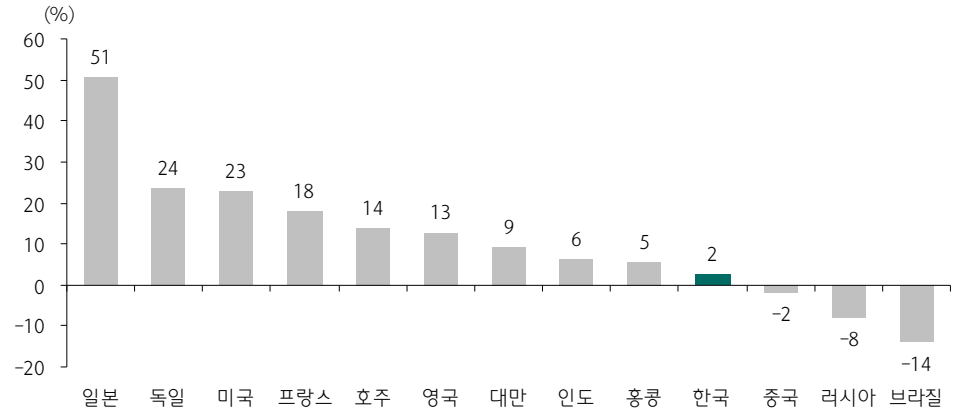
12월은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의 배당 수요로 순매수 유입된 적이 많았다(그림3). 이번 12월은 증권과 보험 같은 3월 결산법인이 12월로 결산월을 변경하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외국인 순매수 재개는 KOSPI의 투자심리 회복에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연말소비 견조한 흐름 보일 것
이라는 점도 긍정적

여러 이벤트들 중 가장 핵심고리인 미국 연말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경제 구조 상 긍정적 연말소비는 경기회복 선순환 흐름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연초대비 주요국 증시 상승률: 한국은 소폭 (+) 수준

한국 증시의 연초대비 성과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수준



주: 올해 연초부터 11월말까지 성과,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표 1. 12월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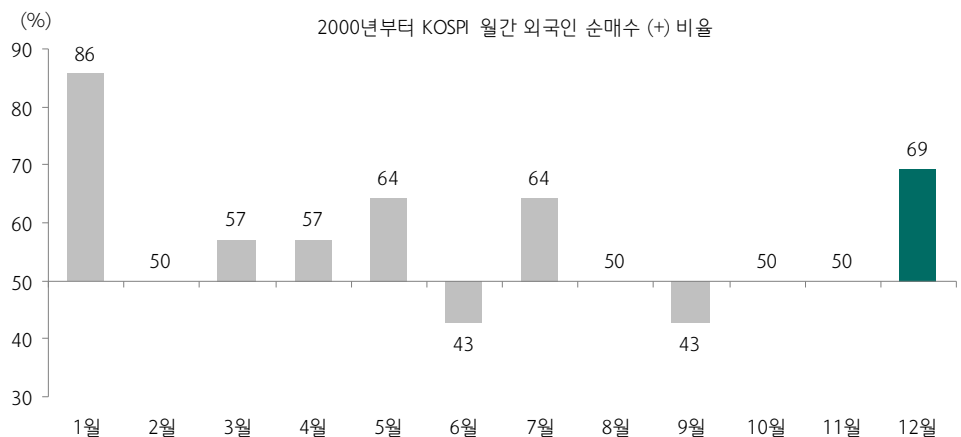
일정	지역	제목	내용
2일	중국	11월 HSBC PMI제조업지수	예상: 50.5 전월: 50.9
	유럽	11월 PMI제조업지수	예상: 51.5 전월: 51.3
	한국	우리파이낸셜, 우리F&I 본입찰	KB금융, 메리츠금융그룹, 대신증권 등 3파전
3일	미국	11월 ISM제조업지수	예상: 55.1 전월: 56.4
4일	미국	ADP취업자 변동	예상: 165,000명, 전월: 130,000명
5일	EU	ECB통화정책회의	유로존 추가 경기부양책 제시 여부 관심
6일	미국	비농업 신규고용	예상: 183천건, 이전: 204천건
2~7일	중국	지방정부 부채조사 결과	악재 가능성
9일	유럽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10일	중국	통화공급 M2 전년비	예상: 14.1%, 전월: 14.3%
12일	한국	금통위 및 선물옵션만기일	
9~14일	중국	신도시화 정책회의 경제 공작 회의	시진핑 주도, 12월 중순 예정 18차 3중전회 내용 구체화
16일	한국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우리아비바생명 본입찰	KB금융과 NH농협, PEF인 파인스트리트 키움증권, 미래에셋금융그룹, 푸르덴셜UK 에이스보험, PEF인 JC플라워 등 참여
17~18일	미국	FOMC회의	테이퍼링 불확실성 해소 주목
20일	미국	3Q GDP 확정치	
	유럽	유로존 3Q GDP속보치 유로존 12월 PMI제조업지수	
23일	한국	경남은행 광주은행 본입찰	BS금융, DGB금융, 경은사랑컨소시엄, 기업은행 신한금융, JB금융 등 경쟁
26일	영국	Boxing Day	영(英) 연방국가에서 유래, 백화점 등 대규모 세일행사
27일	한국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	26일까지 배당주 매수 시한

자료: 하나대투증권

그림 3. 월별 외국인 순매수 유입 확률을 볼 때, 12월은 1월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12월은 전통적으로 배당 수요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 많았음

2000년부터 작년까지 13번 동안
2004, 2005, 2007, 2011년을 제외하
고 8번 순매수 유입된 것으로 확인



주: 1월~11월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2월은 2012년까지 월별 외국인 순매수 유입 비율임,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2. 미국의 연말소비가 중요한 이유

미국 GDP 변동에 소비지출이 기여하는 비중은 80% 수준으로 절대적

미국 실질GDP와 실질 주가상승률의 차이 존재

GDP 절대 비중 높은 소비회복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

미국 경제는 소비지출 비중이 절대적

미국 GDP의 변동에서 소비지출이 기여하는 비중은 대체로 80%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소비의 비중이 연도별로 (-)권까지 내려간 적도 있지만 큰 흐름은 70% 이상이 대부분이다(그림4).

소비로 이루어진 미국 경제에서 그 동안 소비심리와 소매관련 지표들이 부진했었다. 이는 미국 실질 GDP 증가율 둔화 양상으로 이어졌는데 실질 주가 상승률은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그 격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그림5).

이번 연말시즌에 긍정적 결과는 미국 증시 버블에 대한 논란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DP 변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은 둔화 중인 실질 GDP 증가율을 반등시켜 주가와 경기의 괴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증시 버블 논란 불식 기대

과거 미국 실질GDP와 실질 주가상승률의 차이가 존재했을 때 공통적으로 경기회복 초반 & 정책금리 하향 구간

전통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미국 GDP와 주가의 상승률 추이는 이번 것과 같이 과거에도 차이가 벌어진 적이 몇 번 있었다. 모두 공통적으로 경기회복 초반이고 정책금리가 하향되는 리플레이션 구간이었다. 이 구간 이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주가 상승률도 다시 반등한 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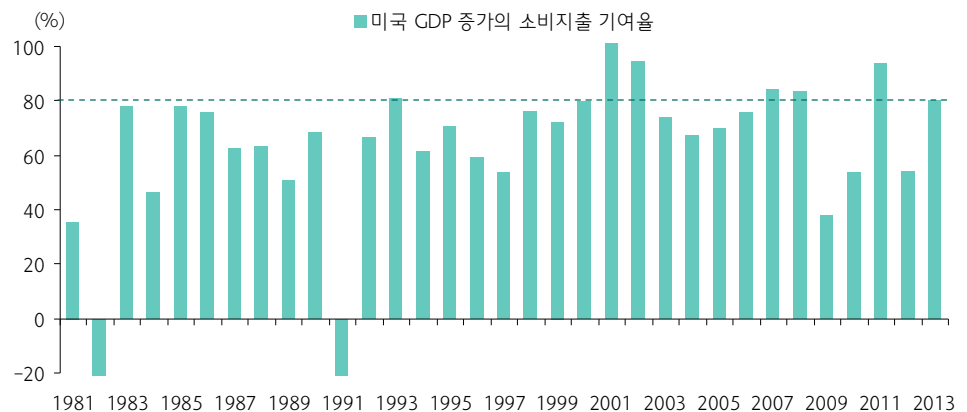
소비의 회복은 미국증시 버블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

결국 이번 연말소비 시즌에 그 동안 부진했던 소비회복의 흐름이 개선을 보게 된다면, 경제회복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미국증시 버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인 소비지출의 회복은 밸류에이션 추이와 유사한 흐름 보여

실제 미국 개인지출의 증가는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추이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왔다. 최근 부담스럽게 여기는 2007년이나 2009년 고점까지 근접한 PER은 미국 소비지출의 반등이 진행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그림6).

그림 4. 미국 GDP 변동에서 소비지출이 기여하는 비중은 대체로 8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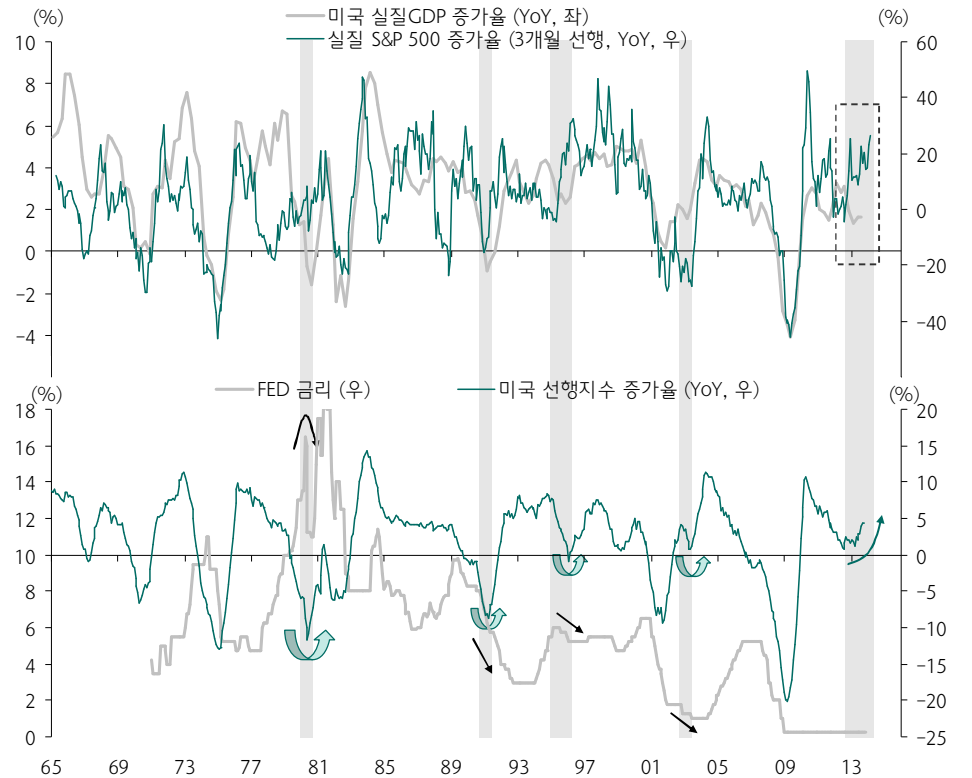
그림 5. S&P 500을 실질로 환산해 미국 실질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최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시기는 정책금리가 하향되고 선행지수 회복 초기였던 적이 많았음. 리플레이션 국면의 현상으로 판단

최근 S&P 500 주가지수를 실질로 환산해 미국 실질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는 미국 증시의 버블 논란으로 이어지는 양상

과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정책금리가 하향되거나 경기 회복 초기인 적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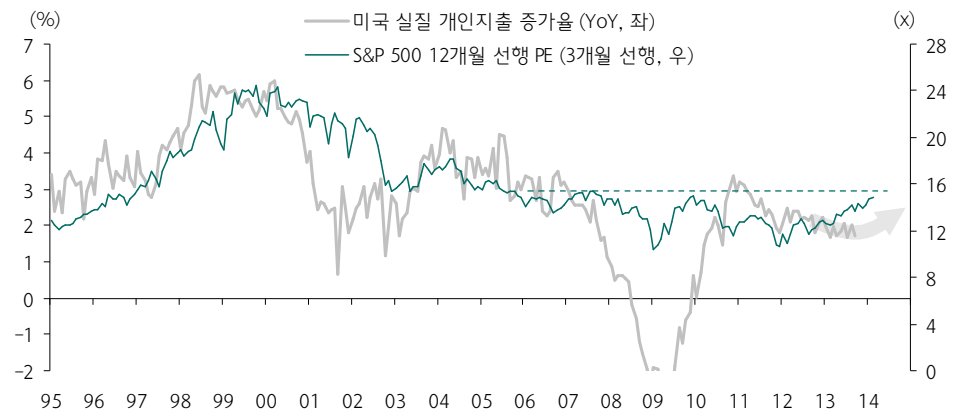
현재 시점도 정책금리는 여전히 0%대 수준이고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판단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그림 6. 미국 개인지출의 증가는 2007년 또는 2009년 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증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시킬 것으로 기대

미국 소비지출의 회복은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3. '효율적 소비' 관점에서 건조한 연말 소비 기대

올해 미국 소매 업종 상승 뚜렷

소비심리 부진에도 미국 소매업종
상승률 높아

소비심리 부진 양상에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소매 업종 상승세는 뚜렷하다(그림7). 올해 초반 이후 소매 업종 주가 상승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소비심리는 둔화 양상이 진행되다가 근래 들어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소비심리가 전 계층에 대해
조사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소비심리 지표는 구매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 일률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올해 소매 업종의 상승은 구매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돌아선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소매업체의 성장성과 중산층 이상의 소비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말소비 기대감 속에 소매 업종은 올해 가장 상위 수익률 업종 등극

소매업종은 올해 미국 증시에서
연초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중

미국 소매 업종은 11월말 기준 연초 대비 올해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까워지면서 연말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하면서 올해 가장 상승률이 높은 업종으로 등극했다.

연말소비 시즌에 대한 여러 예측이 있지만 주가는 긍정적인 쪽으로 전망한 것이다.

온라인 소매 업체 성장과 연말소비 시즌 긍정적 효과 주목

온라인 소매업체의 호조는 편리함과
'효율적 소비'의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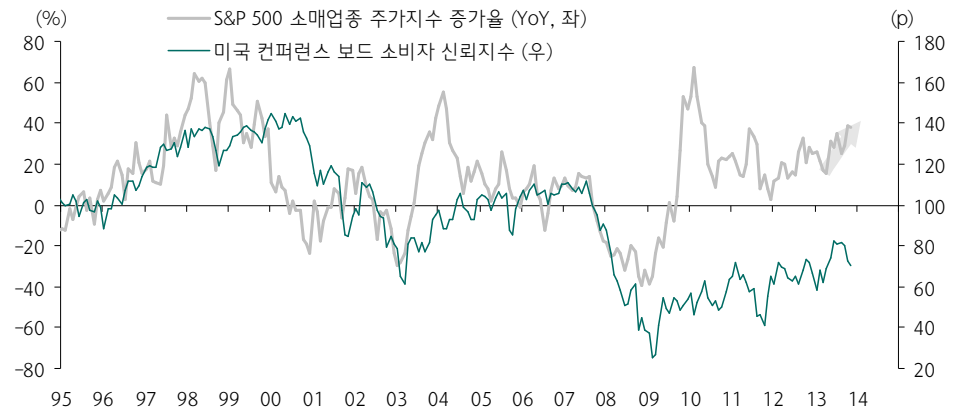
올해 소매 업종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아마존이나 프라이스라인닷컴 같은 온라인 업체이다. 온라인 소매 업체 호조는 쇼핑의 편리함과 함께 소위 '효율적 소비'의 산물로 판단된다. '효율적 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소비 트렌드로 이번 연말소비 시즌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할인율 큰 연말소비 역시 같은
관점에서 긍정적 흐름 기대

연말소비 시즌은 연중 가장 할인율 큰 세일 기간으로 합리적 소비자라면 이 기간에 쇼핑하는 것이 '효율적인 소비'이다. 온라인 소매 업체의 성장과 함께 '효율적 소비' 관점에서 연말 소비 시즌의 성과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소비심리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매업종 주가는 올 한해
상승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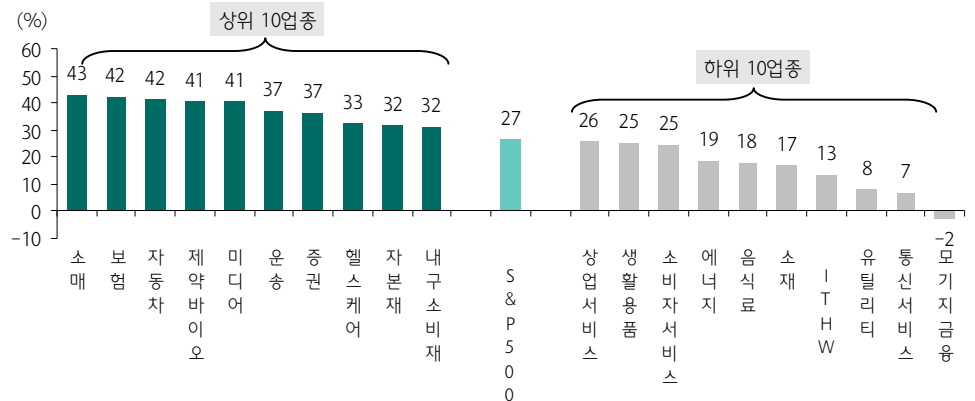
그림 7. 미국 소매업종 주가 상승 뚜렷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소매 업종은 최근 양호한 연말소비
기대감 속에 가장 상위 수익률
업종으로 올라섬

그림 8. 연초대비 미국 업종별 상위 성과 Top10: 소매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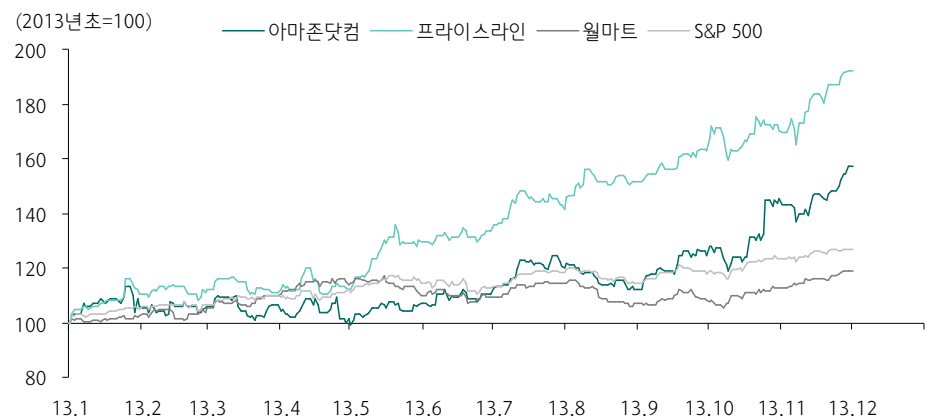


주: 올해 연초부터 11월말까지 성과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과
프라이스라인은 미국 소매업종의
시가총액 상위 1, 2위 업체로 업종
주가상승을 이끌었음

필수품 소매업체인 월마트도 11월
후반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상승률은 온라인 업체에
비해 미미한 편

그림 9. 주로 온라인 소매 업체들이 미국 소매 업종 주가 상승을 이끌었음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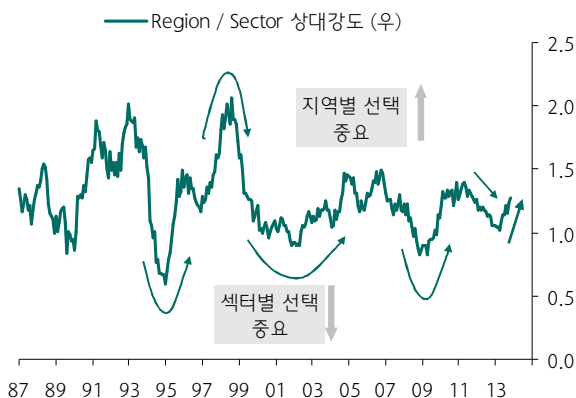
4. 12월 모델 포트폴리오: 대형주 중 소외주에 주목

주식시장을 사자는 관점에서 접근 유효

당분간 섹터별 선택의 포트폴리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미국 연준의 tapering은 어찌됐건 내년 1분기까지 실행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고 경기회복 흐름 속에 주도 섹터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섹터별 선택은 그리 포트폴리오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 글로벌 증시 성과의 지역별 민감도와 섹터별 민감도의 상대강도 추이는 최근 반등이 이어지면서 섹터별 선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실제 최근 지역별 성과의 편차는 섹터별 수익률 편차에 비해 더 뚜렷하게 나타남

증시 성과의 지역별 민감도 상대강도가 반등하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11월말까지 성과를 보면 지역별 성과는 최대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의 차이가 30%가 훌쩍 넘는 정도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섹터별 성과는 최대와 최저 수익률 차이도 20% 수준으로 지역별 수익률 차이에 비해 작고 10개 섹터 중 6개 섹터인 산업재, 경기민감재, 금융, IT, 그리고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섹터의 성과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큰 그림은 꾸준한 증시회복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채권대비 가격메리트는 하향 중인 영향 받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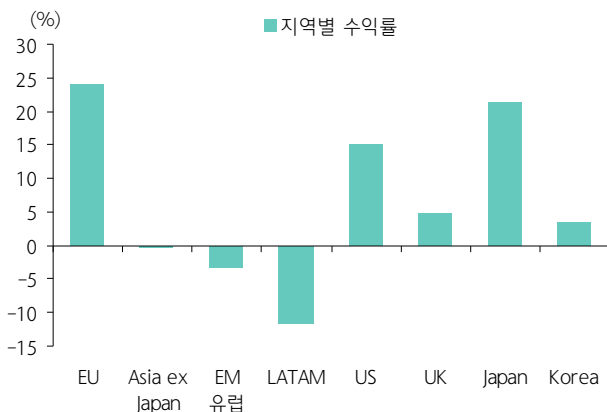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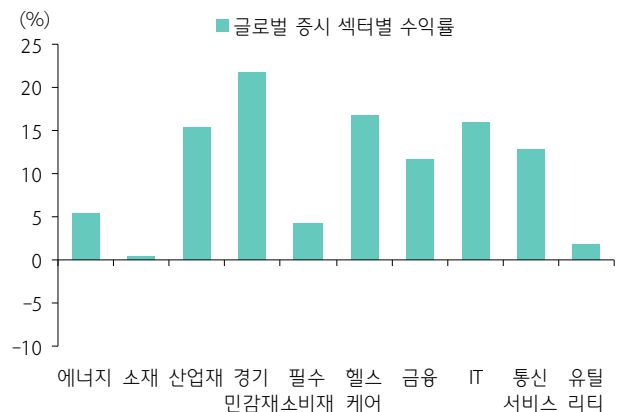


그림 12. 미국증시도 단기적으로 채권대비 가격메리트 하향 중



주: 성과는 지역별 선택이 섹터 선택보다 중요해진 지난 4월부터 11월말까지 성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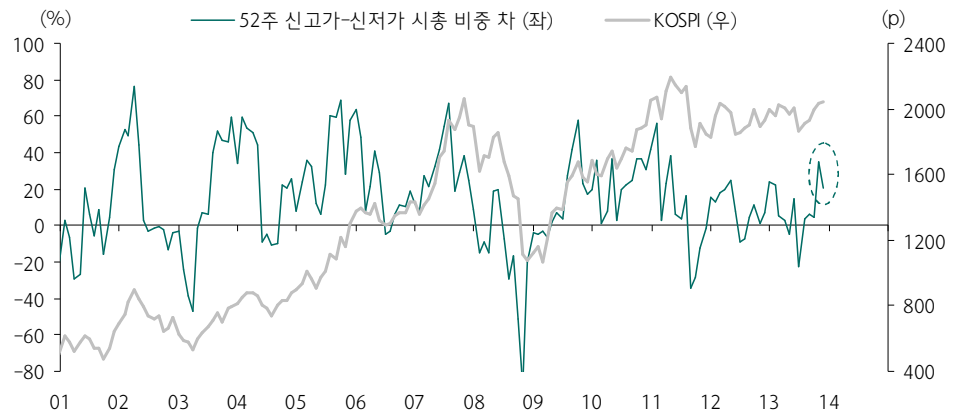
대형주 장세에서 소외된 대형주

대형주 중심 증시회복에도 불구하고
11월 52주 신고가 종목의 신저가 종
목 시총 비중 차이가 하락함

섹터별 선택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대형주 중심 장세에서 소외되면서 부진한 성과를 기록 중인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11월에는 유난히 대형주 중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대형주 중심 증시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종목의 신저가 종목 시총 비중 차이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3).

그림 13. 대형주 중심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52주 신고가와 신저가 종목들의 시가총액 차이는 오히려 소폭 감소함

최근 52주 신고가와 신저가 종목
시가총액 차이가 소폭 감소한 것은
주로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신저가
종목을 기록한 것도 꽤 존재하기
때문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물량회복 기대되는 상황에서 신저가 수준에 위치한 대형주 주목

글로벌 교역량 회복과 함께 전반적
호조세 기대

글로벌 경기선행지수 반등세와 함께 교역량의 회복도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물량 회복 흐름과 함께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들의 반등 흐름 기대된다.

재무부실 종목들은 tapering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된 이후 접근
유망

경기회복 시기에 부진한 펀더멘털로 하락한 종목의 경우 경기회복과 함께 펀더멘털 개선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재무 건정성 부실한 종목들은 tapering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접근이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11월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 리스트

종목번호	종목명	시가총액 (조원)	신저가 이후 수익률 (%)	평균주가 대비 수익률 (%)	최근 종가	52주 신저가	신저가 기록일	52주 평균주가
A001040	CJ	3.0	5.4	-14.8	104,000	98,700	11/12	122,073
A001120	LG상사	1.1	1.2	-21.0	29,250	28,900	11/04	37,046
A003450	현대증권	1.0	6.9	-19.5	5,900	5,520	11/18	7,330
A003490	대한항공	1.8	-1.9	-15.3	30,450	31,050	11/11	35,940
A005940	우리투자증권	2.1	6.9	-8.3	10,600	9,920	11/14	11,563
A006800	대우증권	3.0	5.1	-13.8	9,200	8,750	11/14	10,669
A009150	삼성전기	6.1	6.9	-9.1	81,800	76,500	11/11	90,004
A012450	삼성테크윈	3.0	4.2	-9.9	56,700	54,400	11/13	62,897
A016360	삼성증권	3.5	3.0	-9.4	45,250	43,950	11/21	49,940
A028050	삼성엔지니어	2.5	-5.8	-41.2	62,900	66,800	11/14	106,889
A030200	KT	8.8	2.6	-7.0	33,750	32,900	11/05	36,293
A034220	LG디스플레이	8.7	7.7	-15.2	24,400	22,650	11/08	28,767
A052690	한전기술	2.3	13.0	-17.8	60,900	53,900	11/06	74,098
A066570	LG전자	11.2	2.9	-8.9	68,400	66,500	11/07	75,043

주: 최근종가는 11/29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11월 모델 포트폴리오 성과

11월 MP는 KOSPI대비 76bp
초과수익기록

11월 하나대투 모델 포트폴리오는 지난달 월간 모델 포트폴리오 자료가 나온 11월 29일 종가를 기준으로 2.29%의 절대수익률을 기록했다. 동 시기에 1.54%의 수익률을 기록한 KOSPI에 비해 0.76%p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11월 중순 이후로 가파른 상승세

11월 중반까지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던 모델 포트폴리오는 11월 중반이 지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1월 18일 이후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11월 21일부터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KOSPI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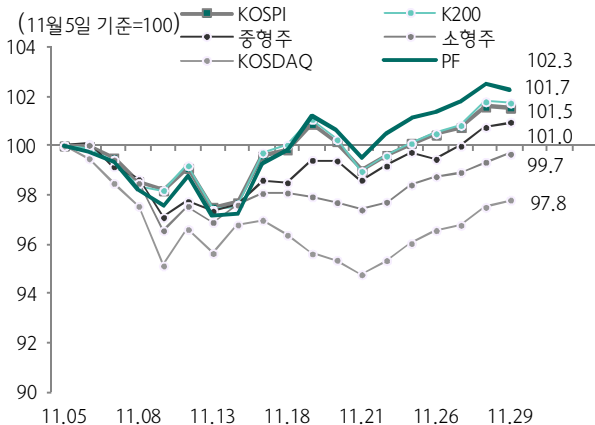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부진과 보험업종,
ITSW업종, 유틸리티 업종의 높은
수익률

11월 포트폴리오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종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큰 삼성전자의 부진이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10월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견인하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보험업종(LIG손해보험, 동부화재)과 IT소프트웨어 업종(NAVER, 엔씨소프트), 유틸리티업종(한국전력)의 수익률 상승기여로 전체 수익률은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로 이어졌다. GS홈쇼핑,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성공적인 종목 선정으로 시장대비
높은 수익률 거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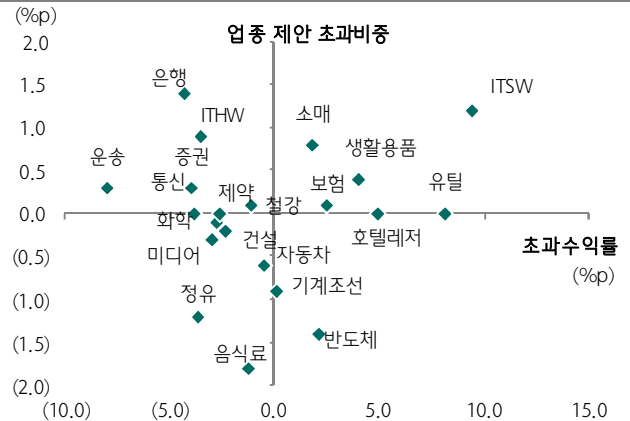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LIG손해보험, NAVER, 한국전력, GS홈쇼핑과 같은 성공적인 종목 선정으로 시장대비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4. 11월 포트폴리오의 시장 지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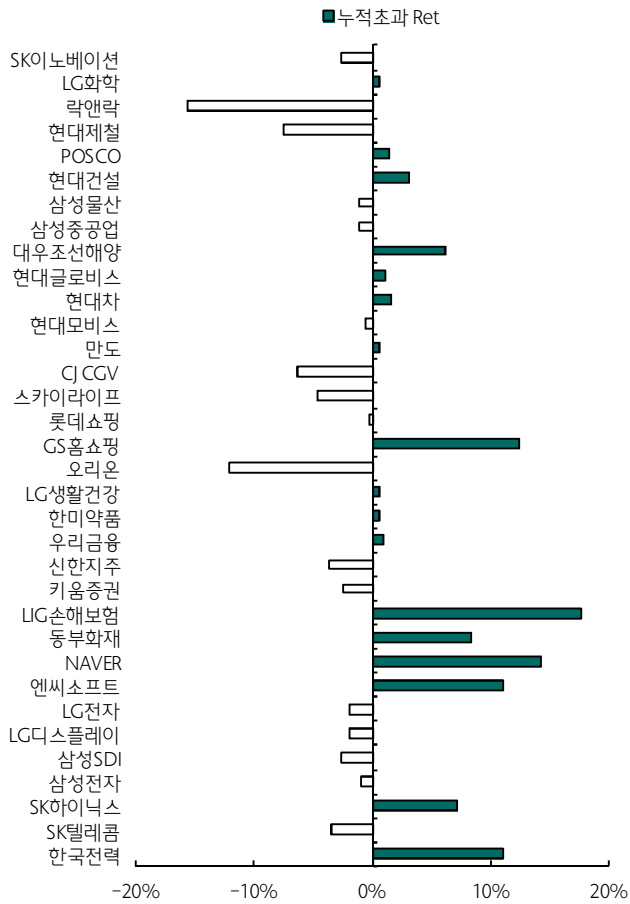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그림 15. 비중확대 업종 중 초과수익 기록한 ITSW, 소매, 생활용품,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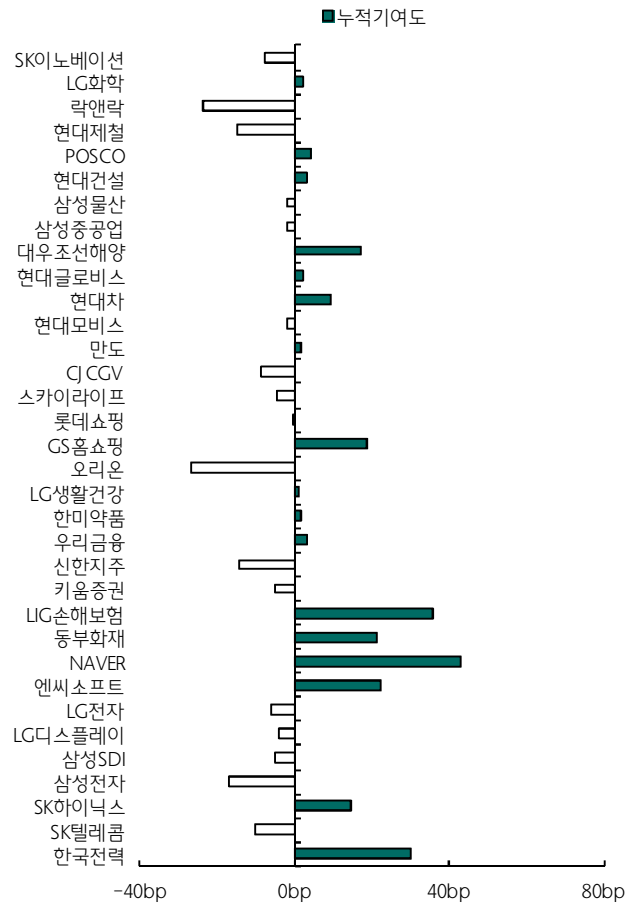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그림 16. 지난 11월MP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주: 1개월 수익률 기준, 11월5일~11월29일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그림 17. 지난 11월MP 종목별 기여도



주: 1개월 수익률 기준, 11월5일~11월29일
 자료: WiseFn, 하나대투증권

표 3. 12월 모델 포트폴리오 편입종목 및 투자지표

섹터	업종	종목 번호	종목명	업종 시장 비중 (%)	업종 제안 비중 (%)	종목 제안 비중 (%)	전월 대비 차 (%)	EPS 증가율 (%)		ROE (%)		PER (배)		PBR (배)		시가총액 (십억원)
								12	13F	12	13F	12	13F	12	13F	
에너지	정유	A096770	SK이노베이션	3.1	3.2	3.2	0.2	(62.6)	2.2	7.9	7.6	13.8	11.1	1.1	0.8	13,315
소재	화학	A051910	LG화학	5.5	5.2	3.5	0.5	(30.1)	(2.7)	14.8	13.0	16.3	14.8	2.3	1.8	19,252
	화학	A115390	락앤락	5.5	5.2	1.7	0.2	18.4	5.0	10.4	10.2	21.3	20.0	2.2	1.9	1,260
	철강금속	A004020	현대제철	4.8	4.5	2.0	0.0	6.6	(23.2)	8.4	6.1	9.4	11.5	0.8	0.7	7,047
	철강금속	A005490	POSCO	4.8	4.5	2.5	(0.5)	(32.5)	(29.0)	6.3	4.3	12.4	16.3	0.7	0.6	28,554
산업재	건설	A000720	현대건설	3.2	3.0	1.5	(0.5)	(19.8)	10.1	11.7	11.8	15.3	12.5	1.7	1.4	7,004
	건설	A000830	삼성물산	3.2	3.0	1.5	(0.5)	12.1	(14.0)	4.3	3.3	22.4	26.2	0.8	0.8	9,873
	기계조선	A010140	삼성중공업	5.4	6.0	3.0	1.2	(6.4)	11.0	16.1	15.6	11.2	10.2	1.6	1.4	9,050
	기계조선	A042670	두산인프라	5.4	6.0	1.5	신규	17.3	적전	16.3	(1.5)	8.2	(59.4)	1.2	0.9	2,209
	기계조선	A047810	한국항공우주	5.4	6.0	1.5	신규	0.9	36.5	8.6	10.9	34.0	27.0	2.8	2.8	2,729
	운송	A020560	아시아나항공	1.7	1.7	1.7	신규	흑전	적전	6.6	(7.1)	19.5	(14.3)	1.2	1.1	979
경기소비재	자동차	A005380	현대차	12.6	12.7	6.7	0.7	11.8	2.9	21.1	18.3	7.3	8.2	1.4	1.3	55,510
	자동차	A012330	현대모비스	12.6	12.7	3.5	0.0	17.7	(2.8)	23.2	18.6	7.9	8.6	1.6	1.5	29,885
	자동차	A060980	만도	12.6	12.7	2.5	0.0	(27.2)	36.2	11.4	13.9	14.4	11.6	1.5	1.5	2,556
	호텔레저	A039130	하나투어	1.4	1.5	1.5	신규	67.7	5.9	25.3	21.2	20.1	20.2	4.2	3.9	755
	미디어	A037560	CJ헬로비전	1.2	1.2	1.2	신규	35.3	(18.8)	16.6	10.9	10.4	16.9	1.5	1.7	1,429
	소매	A023530	롯데쇼핑	3.3	3.5	2.5	0.0	15.9	(6.4)	7.5	6.5	10.1	12.2	0.7	0.7	12,344
	소매	A028150	GS홈쇼핑	3.3	3.5	1.0	(0.5)	(47.3)	24.5	16.5	18.0	9.4	14.0	1.4	2.2	1,855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음식료	A033780	KT&G	3.9	4.0	2.5	신규	(9.6)	(5.7)	14.9	13.3	15.0	15.5	2.0	1.8	10,777
	음식료	A097950	CJ제일제당	3.9	4.0	1.5	신규	(15.5)	(30.6)	9.0	5.8	20.1	21.0	1.7	1.2	3,379
	생활용품	A090430	아모레퍼시픽	1.7	2.0	2.0	신규	(17.6)	(1.1)	12.1	10.9	31.1	24.8	3.6	2.6	5,594
	제약	A006280	녹십자	2.8	2.5	2.5	신규	(3.1)	32.1	8.3	9.7	26.4	20.9	2.1	1.9	1,525
금융	은행	A053000	우리금융	5.9	6.0	3.0	(0.5)	(25.9)	(54.9)	8.8	3.8	6.0	14.3	0.5	0.5	10,196
	은행	A105560	KB금융	5.9	6.0	3.0	신규	(28.2)	(20.5)	7.2	5.4	8.6	11.3	0.6	0.6	15,338
	증권	A006800	대우증권	1.6	2.0	2.0	신규	(24.1)	(76.7)	3.2	1.7	31.1	106.0	1.0	0.8	3,006
	보험	A088350	한화생명	4.5	4.5	2.5	신규	(4.1)	(8.6)	7.2	7.3	12.1	14.0	0.8	0.9	6,297
	보험	A005830	동부화재	4.5	4.5	2.0	(0.5)	23.5	(31.7)	18.4	14.5	6.9	11.9	1.0	1.2	3,795
IT	ITSW	A035420	NAVER	4.1	5.0	3.0	0.0	21.4	(6.8)	31.4	29.7	19.9	56.8	5.2	12.9	22,810
	ITSW	A036570	엔씨소프트	4.1	5.0	2.0	0.0	29.1	5.1	16.8	15.2	21.1	31.8	3.0	4.1	5,205
	ITHW	A066570	LG전자	6.0	7.0	1.5	(1.5)	흑전	459.3	0.5	3.0	199.3	33.1	1.1	1.0	11,194
	ITHW	A034220	LG디스플레이	6.0	7.0	1.5	(0.5)	흑전	104.2	2.3	4.6	47.6	18.3	1.1	0.8	8,731
	ITHW	A009150	삼성전기	6.0	7.0	2.0	신규	26.1	8.5	11.9	11.7	17.5	13.3	2.0	1.5	6,110
	ITHW	A006400	삼성SDI	6.0	7.0	2.0	0.0	359.7	(69.4)	21.8	6.0	4.8	18.4	0.9	1.0	7,995
	반도체	A005930	삼성전자	21.4	20.0	18.0	0.0	73.2	35.3	21.7	23.7	11.2	8.1	2.0	1.5	220,065
	반도체	A000660	SK하이닉스	21.4	20.0	2.0	0.0	180.5	흑전	(1.8)	22.9	(110.5)	9.7	1.8	2.0	25,141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A017670	SK텔레콤	2.8	2.5	2.5	(0.4)	(28.6)	55.4	9.8	14.3	10.7	10.2	0.9	1.2	18,249
유틸리티	유틸리티	A015760	한국전력	3.1	2.0	2.0	(0.7)	(6.0)	적지	(6.1)	(0.9)	(6.2)	(47.5)	0.4	0.4	20,543

주: 주가는 11/29일 종가 기준

자료: 하나대투증권